



유역보전을 위한 강살리기네트워크

관련단체
코너

1

River & Culture



신진철 | 유역보전을 위한 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gang@rivernet.or.kr)

유역보전을 위한 강살리기네트워크는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국적인 연대 모임이다. 21세기 생명의 물을 살리고 유역의 보전을 위하여 유역주민, 시민환경단체, 풀뿌리단체들이 연대하여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감시와 문제해결, 수자원 및 수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건강한 유역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9월 결성되었다. 현재 전국에서 강과 하천살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 40개의 시민환경단체, 하천거버넌스, 지방의제기구들이 회원단체로 주로 참여하고 있다.



<http://www.rivernet.or.kr>

주요사업으로는 창립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한국 강의 날 대회’와 한국 강포럼, 전국하천동시모니터링 사업, 수계 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전국 수환경교류회’와도 올해로 15년째 지속적인 한일 교류를 맺어오고 있다.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축제, 한국 강의날대회

강살리기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자, 대외적으로도 잘 알려진 행사는 바로 ‘한국 강의날 대회’이다. 올해로 12 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행사에는 전국의 강과 하천지킴이 들 약 2천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통상 첫째 날은 한국강 포럼과 개회식이 열리고, 둘째 날부터는 이 대회의 가장 핵심 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강과 하천살리기 사례 컨테 스트’ 예선대회와 지역 하천을 투어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 된다. 사례 컨테스트 본선대회가 치러지는 마지막 날에는 시 상식과 함께 폐회식이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는 차기대회 또 는 차차기 대회 유치지역이 확정되며, 대회 선언문 낭독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일본의 강의날 대회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하천살리기 운 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단체들 간의 경험교류와 연대를 강화 하기 위해 시도된 ‘강과 하천살리기 사례 컨테스트’에는 매 년 약 40~50개 정도의 하천 살리기 운동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비록 컨테스트의 형식을 빌어 발표를 하고, 심사를 하

며, 투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결정하고 있지만, 대회의 취지 는 서로에게 배우며, 즐기기 위한 자리다. 뿐만 아니라 ‘좋은 강이란 무엇이고, 좋은 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털어놓고, 나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의 발표와 심사위원들의 심 사 그리고 관객석에서의 발언 등이 모두 공개로 진행되며, 심 지어 심사위원들은 모든 참가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투표를 하고, 자신들이 투표한 이유에 대해 발언을 해야 한다. 물론 심사위원과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발언권을 얻 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약속이 하나 있다. 대회의 성격이 우열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상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응원하자 는 것이기에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발언은 제한된 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일본의 ‘좋은 강, 좋은 강 만들기 위 크숍(통상 일본강의날대회라고 부름)’의 형식을 빌어오기는 했는데, 워낙 경쟁문화에 익숙한 한국사회의 토양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비록 많은 에피소드들과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 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열린 열한 번의 대회를 통해 약 500여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매년 대회에서 본선에 오 르거나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은 일본 강의날 대회에 초 대되어 발표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일본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대회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의 건국대학교와 한강 독섬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현재 한강시민위원회의 위



2008년 한일하천환경단체 교류회



2012년 일본강의날 대회 참가기념



2012년 하천환경정기 평가를 위한 총괄 워크숍



2012년 한국강의날 수원대회 개막식

원장인 김정욱(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교수님과 김진흥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중앙대학교 교수)가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문승국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이 명예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서울지역의 하천운동에 관련된 단체들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사업본부가 주축이 되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의 단체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하천지킴이들에게 ‘한강’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손보고 있다. 특히 둘째 날 한강특성공원에서 열리는 라디오 쇼에서는 한강에 얽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신청을 미리 접수받아 한강과 함께 해온 서울시민들의 이리저리한 추억들이 소개될 예정이고,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 시민들이 준비해 온 ‘한강의 새로운 비전’ 선언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례 컨테스트나 한강투어 프로그램 등 강의날대회 안내와 참가 신청은 강살리기네트워크 홈페이지(www.rivernet.or.kr)를 참고하거나 사무처

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 강의날 대회에 맞춰 열리는 ‘한국 강포럼’은 매년 강과 하천에 관련된 중요한 의제들이 다루어진다. 올해 서울대회에서는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조사 그리고 강의 복원과 재자연화가 화두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일본의 우수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메콩강 유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를 초대하여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다.

‘전국 하천 동시모니터링’은 관심 있는 단체들이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5~6월과 하반기 9~10월에 대략 시기를 맞추어 정해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정해진 하천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모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대상 하천을 정하고, 체크리스트를 협의하는 자리는 매년 사전 워크숍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하천환경의 물리, 화학, 생물, 사회적 인자들로 구성된



2012년 한국강포럼-4대강 재자연화를 꿈꾸다



2012년 한일하천환경단체 교류 및 탐방



제11회 한국강의날 수원대회를 마치고

20개의 항목이 있고, 특별한 사항은 별도의 기록으로 정리한다. 이미 10년이 넘게 모니터링을 해온 단체도 있고, 관심이 있었지만 업무를 내지 못해 시작하지 못했던 단체들도 있어 워크숍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자리로 마련된다. 경험 있는 단체들의 노하우를 나누고, 전문가들이 최소한의 체계적인 틀과 지침들을 조정해주고 있어 대략 5~6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통해 하천



청소년 오픈스페이스-유유상종

수평적인 연대와 교류, 네트워크

네트워크 조직은 상호 수평적인 연대와 교류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배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여개의 운영위원 단체가 중심이 되어 매월 열리는 회의를 통해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되고 결정된다. 한국 강의날 대회에 대한 준비는 물론이고, 물과 하천관련 정책들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끌어내기도 하고, 회원단체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의논하기도 한다. 현재 수원에 자리하고 있는 사무처는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단체들 간의 상호 연대와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031-269-4426) 



2013년 제12회 한국강의날 서울대회 포스터

